

2012년 봄 학기  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  
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

메시지 64

요한계시록에서  
(13)

어린양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등이심

성경: 계 21:23, 22:5, 요일 1:5, 7, 엡 5:8-9

**I. 어린양 그리스도는 빛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새 예루살렘의 등이시다—계 21:23.**

- A. 어린양은 빛이신 하나님을 그 안에 담고 계시는 분이신데, 이는 어린양은 등이고 하나님은 등 안에 있는 빛이기 때문이다. 이기는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 하나님을 담고 계신다. 이것이 어린양의 최종 완결이다—요일 1:5, 7.
- B. 신성한 빛은 구속자를 통해서 비추기 때문에 이 빛이 사랑스럽고 만질 수 있게 되었다. 하나님의 빛은 분배를 위해 구속하는 분이신 어린양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빛 비춤이 되신다—계 21:23, 22:1-2, 비교 딤후 6:16.

**II. 빛이신 하나님은 등이신 어린양 안에 계신다—계 21:23, 요일 1:5.**

- A. 새 예루살렘 성에는 구속하고 빛 비추는 하나님이신 특별한 종류의 빛이 있을 것이다. 구속하시는 하나님은 빛나는 하나님으로 비추실 것이다—계 22:1, 5.
- B. 하나님의 비추시는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이며,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는 그 빛을 담고 있는 등이시다—21:23.
  - 1.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의 빛이며, 그 내용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빛 비추신다—11 절, 요 1:4-5, 14.
  - 2.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온 성의 누림으로서 빛 비춤이 되실 것이다. 새 예루살렘의 첫 번째 누림은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이시다—계 21:23.
  - 3.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인데, 왜냐하면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 자신이 결코 지지 않는 '해'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—22:5.
  - 4. 이것은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체험이 될 수도 있다. 우리가 우리의 온 존재를 주님께 열어드릴 때, 우리는 그 빛 안에 있으며 그 빛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위한 하나님 자신이시다—21:2, 10-11, 22:16 상, 요일 1:5, 7, 골 1:12-13.

**III. 우리에게 유일한 빛이신 구속하시고 빛 비추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연의 빛이나 인공적인 빛이 필요 없다—계 22:5, 사 50:10-11.**

- A. 새 예루살렘의 빛은 유일하고 영원하며 신성한데, 거룩한 성 안에 있는 구속받은 선민들이 그 빛 안에서 살고 행한다—계 21:23, 25:
  - 1. 우리에게는 참된 빛, 모든 빛의 근원이 있다. 그 빛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시는 하나님이시다.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내재적인 본질이다—23 절, 22:5.
  - 2. 새 예루살렘 전체가 지성소가 될 것이며, 지성소의 빛은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에 계시는 그분 자신이시다—21:16, 11.
- B. 새 창조의 원칙에 따르면,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빛이신 하나님을 갖고 있으며, 결코 우리 자신의 빛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—고후 5:17, 4:4, 6, 사 50:10-11.
- C.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으로서 빛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비추심 아래 살아야 한다—엡 4:16; 5:8, 시 119:130.

**IV. 빛은 모든 것들이 하나와 조화 안에 있게 하는 다스리는 능력이다—계 22:5, 엡 1:10.**

- A. 빛은 다스리는 능력이다. 빛을 발할 때 다스린다—계 22:5.

1. 어둠이 있는 곳에는 혼돈이 있지만, 다스림과 통치와 함께 빛이 비추는 곳에는 질서가 있다—창 1:3.
  2.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빛 비춤이 있고, 빛이 비추는 곳에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.
  3.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갖는다면, 우리에게 빛이 있을 것이다. 빛이 첫째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질서있게 하는 것이다—14-18 절, 요 8:12, 엡 1:10.
  4.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갖고 있을 때, 우리는 먼저 질서를 갖고 그 다음에는 생명을 갖는다—고후 4:6.
    - a. 빛이 비출 때 빛은 또한 낡는다. 생명은 빛에서 온다—요 1:4-5, 7-13.
    - b.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으로 비추어질 때,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온다. 빛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온다—8:12, 12:36, 46.
- B.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생명으로 오실 때,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친다—요 1:4, 엡 5:8-9.
1. 이 생명은 죽음을 삼키고, 이 생명은 어둠을 몰아낸다—요 1:4-5, 8:12.
  2. 우리가 생명 안에 있고 빛 아래 있다면, 혼돈에서 구출되어 질서와 조화와 하나 안으로 이끌릴 것이다—엡 1:10.
  3.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, 우리는 빛 아래 있고 빛의 능력의 통제를 받는다—계 22:5.
- C.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빛나는 빛으로서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시는 중심이시다—1-2 절, 21:23.
1. 이 빛으로부터 생명의 모든 풍성이 온다—요 8:12, 10:10 하, 11:25.
  2. 하나님은 빛이시며, 그분에게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, 이 생수 안에서 생명나무가 자란다—요일 1:5, 계 22:1-2.
- D.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에는 다스리는 능력과 질서가 있고, 다스리는 능력과 질서가 있을 때 발아시키는 능력, 생명의 산출이 있다.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그림이다—창 1:3-26, 계 21:10-11, 23, 22:1-2, 5.
- V. **하나님께서 빛이시므로,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. 우리는 심지어 빛 자체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야 한다—엡 5:8-9, 요 12:36, 마 5:14, 요일 1:5, 7.**
- A. 하나님께서 빛이시므로,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—요일 1:5, 엡 5:8, 요 12:36.
  - B. 우리는 빛의 자녀들일 뿐 아니라 빛 자체이다. 우리는 빛이다.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다—마 5:14, 요일 1:5.
  - C. 우리가 빛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의 영역 밖에 있다—7 절.
  - D.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행한다면, 우리는 에베소서 5 장 9 절에 묘사된 열매를 지닐 것이다.
    1.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실재로 표현되실 수 있으시도록, 빛의 열매는 본성에서 선행해야 하고 절차에서 의로워야 하며 표현에서 참되어야 한다.
    2. 선과 의와 참된 것 안에 있는 빛의 열매는 삼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.
      - a. 선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빛의 열매의 본성이시다. 그러므로 9 절의 선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킨다—마 19:17.
      - b. 의는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는데,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절차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러 오셨기 때문이다—롬 5:17-18, 21.
      - c. 참된 것, 빛의 열매의 표현은 영 하나님을 가리키는데, 왜냐하면 그분께서 실재의 영이시기 때문이다—요 14:17; 16:13.